

일반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Caring Crisis and Commons as an Alternative Approach:
A Case Study of WeStay Byeollae

박윤희** · 백일순***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 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적 재생산, 돌봄, 커먼즈,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 수료(pyh0620@snu.ac.kr).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thinki01@snu.ac.kr).

1.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 국면의 돌봄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해가 되어버렸다. 한국 역시 2월부터 발생한 감염자의 수가 8월 이후 다시 급증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하였으며, 확진자들의 일부는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임미나·김지현, 2020).¹⁾ 학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축소되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국가의 복지 영역으로서 관리되어 왔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사실상 차단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돌봄에 대한 몫이 그대로 개인의 영역으로 전가되었다.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부모 5명 중 1명은 생업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해당 아동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지원 등이 모두 중단되면서 고립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증가하였다(이병훈, 2020).²⁾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일상이 외부에 의존하도록 구조화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공공성이 작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개별 가족이 감당해 왔던 돌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다른 예로 노인 요양 시설은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되면서 발병 초기부터 위험 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의 방문이 제한되었고 급기야는 노인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랐다. 2020년 12월 하루 평균 1000명을 상회하던 시기의 요양보호시설의 확진률이 약 14% 이상이었다는 것은 일반 시설의 확진률이 최대 2%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노출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

1) 임미나·김지현, “코로나 확진 후 자택 대기중 서울만 580명”, 《연합뉴스》 2020년 12월 18일 자.

2) 이병훈, “발달장애 가족 덮친 코로나19 ... 부모 20% ‘돌봄 부담에 직장 관둬’”, 《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22일 자.

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뉴시스, 2020).³⁾

이처럼 돌봄의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돌봄 부재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19와 같은 광범위한 위험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처럼 코로나가 수면 위로 끌어올린 빈부격차 심화와 실업률 증가, 교육격차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두는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용어로, 비(非)생산적 노동 또는 종종 보살핌의 일이라고 불리며 마르크스의 논의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주제였으며, 계급에 의한 차이나 지식의 생산과 교환과 관련된 사회적 재생산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다루어져 왔다(Norton and Katz, 2016).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모든 것으로,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서 휴식, 여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교류활동 전체를 포함한다(Federici 2019b).

그동안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연구는 첫째, 인류의 생물학적 재생산, 모성의 조건 및 사회적 구성, 둘째, 생계,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노동력의 재생산, 셋째,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내에서 완전히 개인화되거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돌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Bakker, 2003; 2007). 그중에서도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키워드로써 돌봄(care)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진정으로 부응하여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정진주 외, 2012).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의 개념적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같은 것으로 치환하기도 한다.

3)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확진율 14~100%...진단까지 5일 소요도” 《뉴시스》, 2020년 10월 26일자.

국내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재생산에 관련된 논의는 주로 돌봄에 대한 주제들이 다수였으며, 크게 임금노동과 젠더 노동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전환된 상황에 방점을 두면서, 어떠한 연유로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생산 노동보다 낮게 평가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은영, 2013; 홍경준·김사현, 2014). 또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저평가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근원적인 지점에 대해 탐색하기 보다는 숙련도, 생산성 등과 같은 생산 노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노동 중심적인 사고를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박현미, 2010; 백학영, 2016; 박정우, 2018). 한편 젠더 노동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국한되어 논의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여성-임금-노동으로서 모성과 감정을 도구화하여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는 구조임을 강조한다(김경희·강은애, 2008; 최희경, 2011; 이아승, 2020).

이와 같이 여전히 돌봄 이슈를 저임금 노동과 젠더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을 개인적인 삶의 질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사회적’이라는 단어에서 함축하고 있는 공동의 과업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의 제언으로 제시된 ‘돌봄 노동의 임금 조정 및 고용 안정’이라는 해결책은 생산 노동에서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임의적인 대응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돌봄’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재생산은 계층화된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 차이를 만들고, 유지하는 문화적 형태와 관행을 포괄하는 지리적·역사적으로 차별화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Norton and Katz, 2016).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노동과 생산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구조화된 관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비용의 지불에서만 접근해 왔던 근시안적인 대안들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이면서도 사회적 관행은 공간적 및 시간적 스케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가사 노동, 무임금 여성 노동으로 대변되어 왔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고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친밀함으로 형성되는 일상의 돌봄과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커먼즈(communs)⁴⁾’의 개념으로 풀어나간 사례를 통해 커먼즈적 문제해결 방법의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원관리를 돕는 각종 사회적 실천과 규범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의 커머닝은 돌봄위기의 대안적 실천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화에 대한 논의는 여성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Mariarosa Dalla Costa), 실비아 페더리치(Silvia Federici)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주의 커먼즈 연구자들은 공유화를 통해 고립되고 사유화된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의 실천 과제를 개방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돌봄의 공유화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깊은 여성주의 관점이 현재 당면한 과제에 주는 함의와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커먼즈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커먼즈와 대립점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재생산을 생산영역과 대비시켜 저평가해 왔던 사회적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고려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달라 코스타, 2017; Federici, 2013; 배상미, 2015; 안숙영, 2017; Montegudo, 2019).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별내 위스테이로, 국내 최초의

4) 한국에서의 커먼즈(communs)는 공유자원, 공유재, 공동자원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 커먼즈라는 용어가 단순히 자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 혹은 시민들의 연합, 공통의 규칙과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체로 설명되고 있어 정확한 어감의 전달을 위해 ‘커먼즈’로 용어 통일을 하고자 한다.

대규모 협동조합형 공동체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스테인은 주민 전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단지 내 다양한 주민조직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를 실천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커먼즈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임을 확인하고 진정한 공유화를 위한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사례 지역의 분석을 위하여 2020년 7월, 11월 두 차례 위스테인 별내의 현장 답사를 통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⁵⁾ 발간된 문헌 자료와 조합원교육 자료, 입주자분석 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 자료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내에서 주요 행위자인 더함 관계자,⁶⁾ 협동조합 사무국 관계자,⁷⁾ 돌봄위원회위원,⁸⁾ 돌봄활동가⁹⁾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 내용을 보완¹⁰⁾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커먼즈 논의에서 재생산 논의가 간과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재생산 학자인 페더리치의 연구를 통해 여성연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와 커먼즈의

5) 1차 방문: 2020.7.28. (현장답사 및 더함관계자 인터뷰 진행).

2차 방문: 2020.11.02.(현장답사 및 사무국총괄 담당 인터뷰 진행).

6) 남/ 50대/ 더함 관계자(2020.7.28. 1차 현장답사 후 대면 인터뷰 진행).

7) 남/ 50대/ 사무국총괄 담당(2020.11.02. 2차 현장답사 후 대면 인터뷰 진행).

8) 여/ 40대/ 1차 조합원*, 돌봄위원회 소속 위원 및 돌봄센터 교사(2020.11.17. 온라인 화상 인터뷰 진행) *1차 조합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모집

9) 여/ 60대/ 일반 조합원, 돌봄활동가(2020.12.03. 온라인 화상 인터뷰 진행).

10) 해당 아파트의 주거 입주일이 2020년 8월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동체 활동이 2020년 11월 말까지 지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행위자들의 인터뷰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활동 내용 역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였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두고자 한다.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2장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사례대상지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자료분석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화 분석결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할 것이다.

2. 사회적 재생산과 커먼즈 논의의 현재

1) 커먼즈 논의와 재생산 논의의 간과

서구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국가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안을 찾아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과 국가의 실패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커먼즈는 시장 실패와 국가 실패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중세시대 목초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의 농촌이나 어촌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어업 활동을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수확물을 공동으로 관리해 온 방식은 커먼즈의 예로 볼 수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Ostrom, 1990)은 이러한 공동체적 해결방식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커먼즈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제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후 공동체적 문제해결은 커먼즈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왔다. 커먼즈의 정의는 지역 주민의 전통적 생계와 생활을 위해 주민 공동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공동체 공동자원을 의미한다(Ostrom, 1990; Bollier, 2014). 그러나 단순히 자원만 존재한다고 커먼즈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커먼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생산 수단의 공동관리와 사용이 필수적이다(최현 외, 2019).

현대 사회에서 커먼즈는 동질성, 고정성, 배타성의 특성을 가진 전통적인

특성보다는 이질성, 유동성, 개방성을 전제로 하며, 공동자원의 도시 내 순환과 공동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이승원, 2019). 따라서 도시 공간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도시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방식의 국가 주도 계획의 한계를 시민들의 혁신적 공유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 및 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커먼즈 개념의 등장은 공공성의 중심을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가가 공급하는 자원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상품화된 자원을 소비했다면, 커먼즈는 시민 공동체가 자원 공동소유하며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Ostrom et al., 1999; 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백영경, 2017; 이승원, 2019).

이처럼 커먼즈는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커먼즈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커먼즈의 주류 담론에서 재생산 논의가 간과되고 있는 점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페더리치, 2013). 예를 들어 커먼즈를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예로 네그리와 하트(2014)의 저서 『공통체』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공유재의 원리 위에 사회가 진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인터넷은 자원의 한계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생성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 따라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부의 자본주의적 독식을 예방하면 공유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네그리와 하트의 공유사회 실현 방안은 재생산 논의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공유재 이론은 지식의 생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만, 일상의 재생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처럼 공유재에 대한 주요 논의들은 남성적이고 파괴적인 생산의 영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재생산의 논의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왔다.

여성주의 커먼즈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남성 위주의 커먼즈를 비판하고

사회적 재생산 중심의 커먼즈화를 주장한다.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는 여성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왔으며 여성주의자들의 연구와 운동을 통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성단압의 역사와 여성연대를 통한 재생산의 위기극복을 연구해 온 ‘실비아 페더리치의 논의에 주목하여 여성주의자들의 커먼즈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커먼즈와 사회적 재생산: 실비아 페더리치의 논의의 탐색과 함의

(1) 사회적 재생산 공유화 논의의 시작

페더리치는 1960년대 반전운동에 참여하며 반전운동 세력이 매우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가부장성에 반기를 든 그녀는 1970년대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와 같은 초기 여성주의 학자들과 국제 페미니스트 집단(The International Feminist Collective)을 창립하고 가사 노동 임금화 캠페인을 주도한다.

197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의 무임금노동이 결코 임금노동의 하위에 있지 않으며, 임금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드러냈다. 페더리치(Federici, 2019b) 역시 임금노동자들이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임금 노동자에게 휘두르는 권력은 무지한 행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임금노동자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인 임금의 탄생이 바로 무임금 가사 노동의 착취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가족, 집 출산 등의 재생산 영역이 노동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운동은 자본주의와 임금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 자본주의적 임금체계에서 임금은 단순히 노동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성의 노동이 당연시되고 착취적인 무임금 노동이 녹아있는 것이었다(Federici, 2019b). 즉, 가사 노동에 대한 임금은 고용주들이 집안의 재생산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막대한 양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비

용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Federici, 2013). 그럼에도 임금노동 위주의 사고는 무임금의 재생산 노동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고 여성학자들은 임금노동 이면에 자리한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드러내고자 하였다(Federici, 2019a; Sato and Alarcon, 2019). 가사 노동의 임금 운동은 자본주의가 가리고 있던, 고립되고 착취당하는 재생산 노동을 공개함과 동시에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와 같은 여성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사유화되고 여성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이 일상 노동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 안에서 가족들의 일상을 지원한다.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대가는 주어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노동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 중심주의, 임금노동의 우월성, 선천적 본능으로서 여성성의 강요가 맞물려 사유화된 재생산 노동 안에서 여성을 끄집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일리치, 2015; 안숙영, 2018).

최근에는 사회적 재생산이 민영화되는 현상과 관련한 논의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 관계가 사회적 재생산에 침투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Katz, 2001; Mitchell, Marston and Katz, 2012). 이 밖에도 돌봄의 위기, 이웃의 소외와 아동학대, 독거노인의 방치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외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생산의 사유화와 여성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페더리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지향점으로 커먼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가사 노동의 임금운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물질적·인식적 공유의 관점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2) 여성주의자들의 커먼즈 논의

페더리치로 대표되는 여성주의자들은 커먼즈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하

지만 남성 중심주의적인 대안과는 궤를 달리한다. 커먼즈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학자들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마리아 미즈(Maria Mies)와 반다나 쉬버(Vandana Shiva) 같은 생태주의 학자들(Ecofeminist)과 자율주의 막시스트(Autonomist Marxist Feminist)인 실비아 페데리치와 마리아로사 달라코스타가 있다.

생태주의 학자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재생산뿐 아니라 생태시스템과 종 다양성 보호에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로, 물, 토지, 숲과 같은 자연물의 공유화에 주목한다(Federici, 2013). 반면에 자율주의 막시스트들은 노동자들의 자주성(autonomy)을 중요시하며, 자발적 활동을 통해 자주성을 드러내야 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Marks, 2012). 접근 방식과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생태주의적 접근과 자율주의적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성주의 내 커먼즈의 영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페데리치는 자본주의에 맞서 연대적 대안으로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를 주장하는 학자이다(Monteagudo, 2019; Sato and Alarcon, 2019; Tummer and MacGregor, 2019). 페데리치의 논의는 쉬버의 연구와 나이지리아에서의 경험, 남미의 여성운동 사례를 등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페데리치는 가사 노동의 임금화 운동에 참여하던 중 생태주의 페미니스트 쉬버(Shiva, 1988)의 연구를 통해 칙포 운동(Chikpo Movement)¹¹⁾을 접하게 된다(Federici, 2019a). 칙포 운동은 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여성들이 상업적인 개발로부터 숲을 보호하고자 시작되었다. 칙포 운동에서 숲의 의미는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음식, 약, 피난처, 정신적 풍요 등을 제공해 주는 재생산의 총체적 시스템이었다. 쉬버의 연구를 통해 페데리치는 여성들이 투쟁해야 할 재생산의 범주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이 운동은 1973년 우타라칸드(Uttar Pradesh)에서 출발하였으며, 인도의 비폭력 시위의 선례이자 전 세계의 환경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생태는 영원한 경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인도의 시민사회를 자극한 운동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해당 운동에 대한 지원과 실행 주체가 주로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생태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주었다(Shiva, 1988).

또한, 페더리치는 남미의 여성들이 반(反)사유화(deprivatization)된 토지, 물, 공간 등을 통해 공동의 재생산 활동을 창조해 가는 사례에서 부의 배분과 자본의 공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Federici, 2013; 2019a). 1980년대 남미의 칠레와 페루는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이 귀해지자 여성들이 공동부역을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재생산 비용을 절약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아프리카의 사례에서는 여성들이 자급농업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아프리카 농업은 환금작물재배로 강요받고 있지만, 여성들이 연대하여 자본이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꾸준히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고자 공공용지의 빈 공간에 옥수수와 카사바를 재배하며 자급농업을 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재는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갖는다. 최근에 커먼즈라고 불리는 공유재 개념이 마치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 개념으로 소개되지만 이미 여성들이 실천해 온 개념인 것이다.

페더리치(2013)는 이러한 여성과 공유재의 역사에 주목하며 여성의 역사에서 커머닝(공유재화)을 배우고 여성들이 중심을 이뤄 공유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젠더화된 재생산의 문제를 공유재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Tummers and MacGregor, 2019). 이 과정에서 공동주거, 공동주방 등을 제안했던 19세기 유물론적 여성주의자들의 아이디어는 여성주의적 공유재를 구축하는 데 영감을 준다. 유물론적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건축이론가인 헤이든(Hayden, 1984)은 미국의 주택 및 도시계획에 내재한 여성억압을 고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적인 페미니스트 주거모델을 제시한다(정현주, 2016).

특히 그녀는 저술에서 19세기 페이어스(Peirce)의 ‘협동가사관리(Cooperative Housekeeping)’, 하우랜드(Howland)의 ‘부업 없는 집’ 아이디어를 사례로 들며 사유화된 여성의 가사 노동을 공유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은 현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공유부역, 공동육아 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서 이미 시도되어 왔으며 여성들

이 구축해 온 경험의 역사는 재생산의 커먼즈화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재생산의 문제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공유재화한다는 것이 반드시 젠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페더리치는 젠더화는 지양하되 공유재화를 실천했던 여성들의 투쟁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커머닝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배상미, 2015; 안숙영, 2017; 페더리치, 2013).

페더리치, 쉬버 등의 여성주의자들이 커먼즈를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커먼즈는 여성의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족과 집은 노동의 재생산을 담당하며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에서 무급노동과 임금노동의 젠더화가 강화됨에 따라 무급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갔다(Tumner and MacGregor, 2019). 이러한 고립은 여성이 대가 없는 노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었고 생산과 임금노동에 가려진 여성의 착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남성,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단지 가족으로서, 남편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로만 여겨져 왔다.

따라서 자녀를 돌보고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등의 일들은 비(非)경제인 행위에 불과했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들은 구조화된 남성-여성의 관계 속에서 여성으로 책임과 의무로만 설명되는 것을 비판해 왔다(Federici, 2012). 반면, 앞서 소개한 직포 운동과 남미의 여성운동 사례 등은 자본주의적 개발에 맞서고 재생산이 중심이 된 연대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커먼즈는 고립된 사회적 재생산을 드러내고 폐쇄적인 과정이었던 재생산을 공개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돌봄으로 대표되는 재생산 노동은 기계화될 수 없는 인간의 창조성과 배려, 이해가 필요한 행위라는 점이다. 페더리치(Federici, 2013)는 재생산 노동을 ‘극도로 노동집약적이고 다량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돌보는 행위는 타인을 돕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과 그에 관련된 관계들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ngland and Folbre, 1999; Folbre, 2006). 재생산 노동은 단순한 육체노동 그 이상의 관계적 노동으로서, 정서

적 유대감에 기반한다(최희경, 2011; 김송이, 2012).

따라서 끊임없이 서비스 수혜자들의 기분을 살피야 하고 감정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감정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생산 노동은 인간의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창조성으로 풀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재생산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돌봄이 짐스러운 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단절을 막기 위해 커먼즈는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Federici, 2019a).

(3) 실비아 페더리치의 커먼즈 논의: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재화

최근 페더리치의 저술(2019)에서는 특히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재화’를 통한 여성의 연대를 강조한다. 여성들이 시초축적과 자본성장의 희생물이었던 역사를 공유하는 재생산 노동자로서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영역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현재의 주류 공유재의 정치를 비판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재생산을 공유화한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속박,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재생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생산의 공유화를 통해 공동체 자산의 공유와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커먼즈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페더리치는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로 커먼즈는 조직이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것에 관한 생각의 전환이다(Caffentzis and Federici, 2014; Monteagudo, 2019). 커먼즈는 물체,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커머닝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 공유공간 등과 같이 단순히 공유할 대상은 기본적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커머닝을 위한 커먼즈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식, 인식의 공유가 수반되어야 하고 공공 아니면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

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공공과 시장의 이분법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해 왔다. 한국의 발전주의 복지국가 체계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여성을 ‘수혜대상을 돌보는 자’로 국한하였다. 가사 노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과거 여성의 도덕성과 의무의 영역이었던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사 노동이 시장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최은영, 2013). 이에 따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공공 지출의 증가는 탈가족화를 촉진하였고, 모든 이로 하여금 상품으로서의 돌봄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최영, 2012).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 노동에 전제되어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노동에 대한 가치는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임금 노동화’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었다(홍경준·김사현, 2014; 함선유, 2020).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그것의 소비와 생산 방식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생산 노동과 마찬가지로 상품화 혹은 시장화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돌봄서비스가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임금의 결정은 돌봄에 대한 가치를 생산 노동보다 저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기저에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면서 체득된 자연스런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거나 특별한 기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김경희, 2009; 박현미, 2010).

이러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조용 안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노동으로서의 안정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백학영(2016)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돌봄 노동에서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이는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낮은 고용의 질을 유지하게 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페더리치가 주장한 인식의 전환은 커먼즈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공공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

나서 공동체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커먼즈적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커먼즈는 시작에서부터 실행 단계마다 사고의 전환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예를 들어 돌봄의 커먼즈화는 단순히 공유 자원인 돌봄시설이나 돌봄 시스템 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공동의 규칙 결정과 협의의 과정을 포괄한다. 즉, 커먼즈라는 것은 물리적인 대상뿐 아니라 사람 간의 만남, 생각의 공유, 논쟁, 의사결정 등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커먼즈 행위자들의 인식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고 커먼즈적 해결방안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커먼즈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진정한 커먼즈를 실현시킬 수 있다.

둘째, 커먼즈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이 필수적이다(Montegudo, 2019). 페더리치는 이것이 커먼즈 정치의 핵심이며 목표라고 이야기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조절, 제공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것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공영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의 돌봄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둘러싼 행위자들이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위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책임의 구조와 역할이 특정 집단에게 쏠리는 경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출산 이후의 경력 회복을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될 때 대다수는 돌봄의 대체자로서 공공영역의 어린이집과 비공식영역의 조부모를 떠올리게 된다. 육아에 대한 방식과 자녀의 육체적·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다 보면, 초기의 돌봄 대체자는 으레 조부모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김양지영(2015)은 조부모 돌봄 지원의 원인으로 취업 부부의 장시간 시장노동에 따른 공공보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강한 가족주의가 결합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조부모, 이주여성 등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돌봄의 불완전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편 돌봄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돌봄 수요가 늘어날수록 노동의 질이 낮

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나 노동시간, 고용의 안정성, 직업에 대한 경력개발이나 사회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처한 작업환경도 인권침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다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순영, 2008; 이은정, 2019). 이러한 상황에 대해 페더리치(2013)는 현재에 처한 돌봄의 위기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하나의 정부(self-government)가 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가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페더리치의 사회적 재생산의 공유화에 대한 논의는 여성주의, 사회적 재생산, 커먼즈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페더리치가 이야기한 두 가지 핵심요소 - 생각의 전환,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 - 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모두를 위한 사회적 재생산과 커먼즈의 시도: 위스데이 별내의 사례

위스데이 별내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16년 12월 국토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김태규, 2019).¹²⁾ 국토교통부가 2015년 1월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기업 특혜 및 고(高)임대료 논란이 일자, 공익 추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 목표를 일부 수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 2017: 21).

소유·관리·운영의 주체가 협동조합인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개발 및 임

12) 김태규, “입주 전부터 예비이웃들과 마을공동체 함께 구상해요.», 《한겨레》, 2019년 11월 29일 자.

대운영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입주민인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구조이다(국토교통부, 2017: 22). 동시에 입주민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리비 절약을 도모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범사업에 사회 혁신기업 「더함」이 선정되었고 그 결과 남양주 별내에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착공되었다. 2017년 4월 20일에 1차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8월에는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30일에 위스테이가 실제 착공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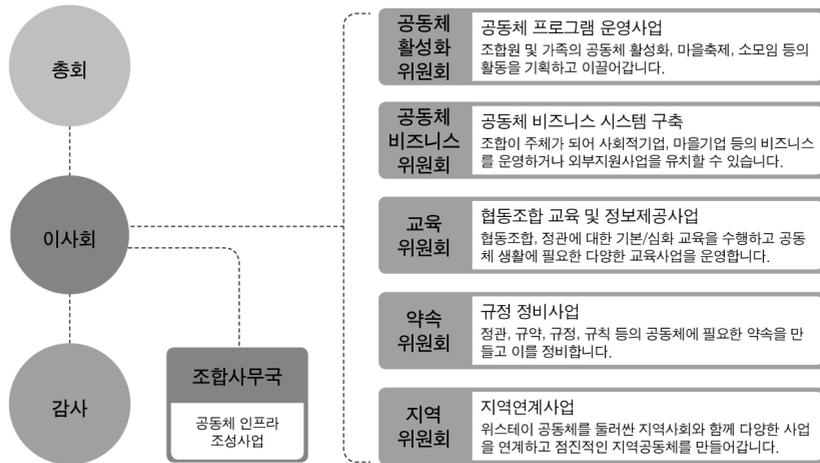
‘협동조합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스테이는 조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위스테이 입주민들은 전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위스테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내고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2017년 5월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있었고, 7월에 별내 공동육아 모임 및 리더 조합원 교육이 시작되었다. 위스테이 협동조합에서 특징적인 것은 리더 조합원이 있었다는 점인데, 운영주체인 「더함」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경험자 123세대를 총 조합원의 25% 정원으로 우선 선발하였다(이승훈, 2019).¹⁴⁾ 이들은 조합 및 커뮤니티 운영을 먼저 준비하고 이후에 들어온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리더 조합원(1차 조합원) 선발 이후 2018년 7월에 368세대의 조합원 선발이 완료되었다.

조합원들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과 더불어 준공 전부터 모여 아파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지, 공용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떠한 문화 프로그램을 열 것인지 등을 결정하였다. 모든 조합원은 필수적으로 조합교육을 들어야 했는데 2017년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2020년 8월에 입주하기 전까지 입주가 확정된 주민들은 최소 7회 정도의 공동체 교육을 이수하였다. 일반의 아파트에서 분양 후 완공 이후에 이웃 간의 소통 창구가 따로 없고, 거주민들에 대한 집합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을 떠올

13) 위스테이 홈페이지. <http://westay.kr/Intro/History>. 검색일: 2020.12.17.

14) 이승훈, “위스테이 500세대의 실험 ... 그들은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2019년 06월 10일 자.

〈그림 1〉 위스테인 협동조합 조직도



출처: 사회혁신기업 더함(2020) 위스테인(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례 연구.

려보면 이러한 교육과 참여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첫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입주 전부터 다양한 입주민 위원회가 꾸려졌다. 입주 전, 공동체활성화위원회, 공동체비즈니스위원회, 교육위원회, 약속위원회, 지역위원회와 같은 5개의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그림 1 참조). 2020년 8월 입주 완료 후, 현재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세분화되어 9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9개의 위원회는 운영, 공간, 100개의 학교, 돌봄, 갈등조정, IT, 교육, 청소년, 어린이위원회으로¹⁵⁾ 각 위원회는 월례회의를 통해 각각의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또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2020년에는 ‘백 개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움이 있다는 가치 아래, 주민들이 좌좌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플랫폼을 만들었다. 자율성, 개방성, 공동체

15) 사무국 직원 인터뷰(2020.11.02).

성, 공공성, 민주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백 개의 학교 소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강좌가 열리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피아노 레슨, 초등 6학년 함께 읽기, 함께 달리기, 성인 독서 모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이수연, 2020).¹⁶⁾ 이처럼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일방적인 전달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아파트 공동체와는 달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가 녹아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스테이는 넓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위스테이의 커뮤니티 공간은 법정 기준의 2.5배인 약 3000m²에 달한다. 육아 친화형을 표방해 놀이터와 잔디광장이 잔디의 중앙에 배치되었으며 동네카페, 동네부엌, 동네키움방, 동네책방 등 공유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은 1차 조합원들이 9개월 동안 마흔여섯 번의 모임을 통해 기획되었다.¹⁷⁾

이처럼 주민 중심 운영위원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 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위스테이 주민들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호를 이해하고 더 많은 공유 자원과 공유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도시 공간에서의 공동체의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 자체가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실천을 ‘공유 자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커먼즈의 실천에 밑바탕이 되며, 단순히 위로부터 주어진 규범을 수용하는 집단 행위가 아니라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주민 스스로 그것을 풀어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포함하는 과정적인 산물로서 커먼즈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6) 이수연, “돌봄위원회, 막걸리학교…‘백개의 학교’가 있는 ‘동네살이.’” 《한겨레》, 2020년 10월 10일 자.

17) 차형석, “전국 곳곳에 이런 아파트가 생겨만 준다면….” 《시사IN》, 2020년 07월 17일 자.

4.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사고 전환의 증거들: 공동체 교육과 틈새 돌봄

1)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

별내 위스테이가 현재의 공동체적인 사고를 주민들 간에 공유하게 된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위스테이에 입주하기 위해 주민들은 필수적으로 조합원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 공동체가 하지 않았던 실천들을 시도하게 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2020년 8월에 입주하기 전까지 입주가 확정된 주민들은 최소 7회 정도의 공동체 교육을 이수하였다.

공동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집이 시장논리 하의 투자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아파트가 매매 차익과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자본화된 투자상품이었다면, 위스테이 조합원들이 지향하는 아파트는 모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스테이의 거주자는 아파트라는 물질적 자원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입주자이자 동시에 공급자와 운영자의 역할을 함께 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둘째, 공동체 교육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주거공동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스테이에서는 일반조합원에서 마을 활동가로 보다 능동적인 주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일반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 거주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셀프리더십을 교육받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위스테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까지 연습하게 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림 2〉 위스테인 조합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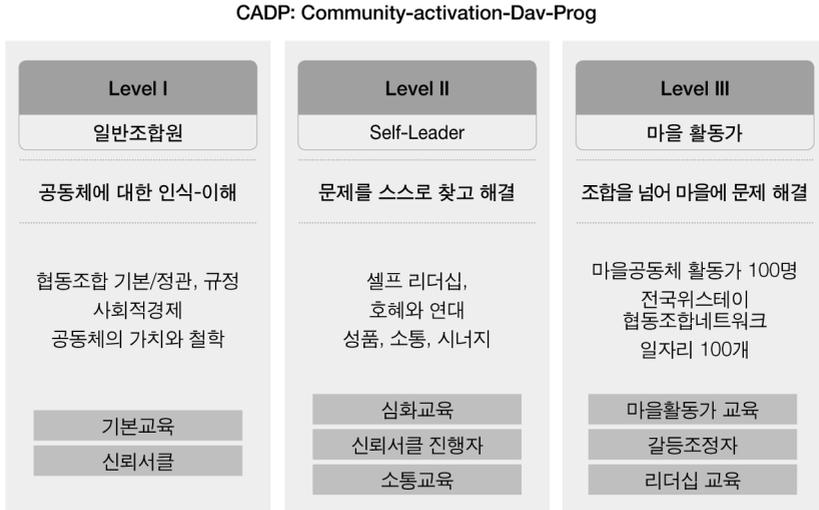


출처: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자료.

셋째, 교육 중 참여형 설계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조기 활성화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도모하였다(사회적기업 더함, 2020). 조합원 교육에서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위스테인이 완공되었을 때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들이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은 배우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바로 옆 호수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 서로 이웃이 되어가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교육은 입주 이전에 함께 거주하게 될 주민들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제공하였고, 이 경험은 공동체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주거지 내의 규율을 지키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위스테인은 교육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문을 던지고 공동체적으로 주거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교육의 결과 조합원들은 조금씩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직접 살아가면서 교육에서 들었던 것을 확인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림 3〉 위스데이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출처: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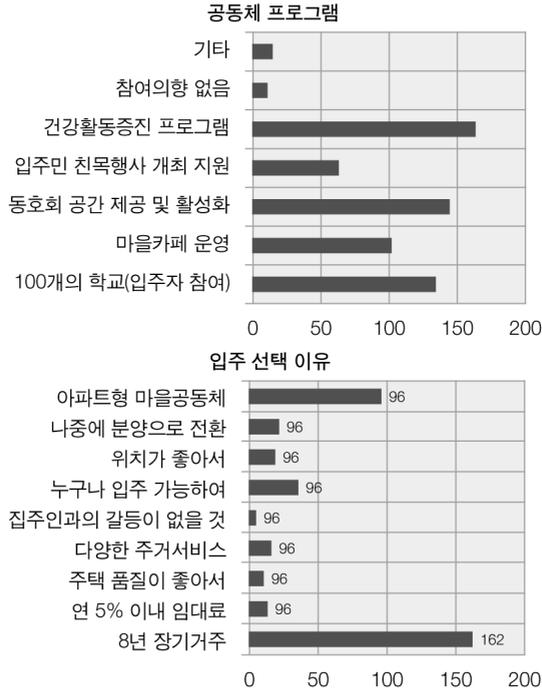
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돌봄활동가 조합원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¹⁸⁾ 초기 협동조합형 아파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거주 경험이 없었던 다수의 주민은 이러한 운영방식에 의문을 갖거나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시장이나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공동체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전제될 때 더 나은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교육은 단순히 협동조합과 커먼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이 아니라 주민들과 주거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교육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생각을 나눌 기회가 생겼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상과 삶의

18) 돌봄활동가 인터뷰(2020.12.03).

〈그림 4〉 위스테인 조합원 설문 결과



주: 2018년 위스테인 별내 입주 전, 계약자 및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총 응답 가구 수: 413가구)

출처: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자료.

공간으로서 주거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주택, 협동조합 아파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나갔다(사회적기업 더함, 2019).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형 설계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주거’에 대한 이미지를 더 구체화 시켰다. 참여형 설계는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고, 그 결과 조합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입주 선택의 이유에 있어 8년이라는 장기 거주 이외에도 마을 공동체의 경험들을 우선으로 꼽았다(〈그림 4〉

참조). 이 결과는 운영구조의 혁신을 통한 공동체적 소유와 커먼즈로의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스테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은 주거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주민들은 한국의 아파트에서 가졌던 기계적인 만남과 돈으로 치환되는 주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익'을 중심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의 형태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게 되었다.

2)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공동체

페더리치는 집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여성주의 커먼즈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페더리치, 2013; Montegudo, 2019). 국가가 제공하는 하향식의 돌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비스의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스테이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거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입주 이후가 되어서야 사람이 채워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위스테이는 입주 전부터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아파트 위원회 중 하나인 돌봄위원회는 1차 조합원 중에서 공동육아를 경험했거나 공동육아를 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사회혁신기업 더함(2020)에서 발간한 자료와 돌봄 소위원회 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1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교육을 시작한 2017년(입주 3년 전)부터 13가구가 공동육아 추진위를 조직하고 꾸준히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회의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육아

<표 1> 위스테이 공동육아추진위 활동 결과

위스테이 별내 공동육아위원회 활동 1. 활동 기간: 2018년 4월 ~ 2019년 2월 2. 활동 횟수: 16회의 소모임 및 워크숍 3.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만들기: 전문퍼실리티이터, 설계사무소, 육아공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주민 스스로 어린 이집 등 육아공간을 디자인 • 내용 만들기(운영방식, 운영조직, 프로그램 등): 공동체 안에서 육아에 대한 가치와 철학, 육아 역할 및 의미 논의,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방향과 교육방식에 대해 입주민이 함께 고민
--

출처: 사회혁신기업 더함(2020) 위스테이(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입대주택) 사례의 내용 재구성.

커뮤니티 시설과 초기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거공동체 안에서 육아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였다. 이후, 공동육아추진위원회는 현재의 돌봄위원회로 자리잡게 된다.¹⁹⁾

위스테이 조합원들은 입주 전부터 공동육아추진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동으로 돌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스테이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30대가 48.7%, 40대가 21.5%로 30대~40대 젊은 부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사회적기업 더함, 2019)²⁰⁾. 또한 2018년 기준 거주 예상 미성년자 311명 중 71.1%가 미취학 아동(0~7세)임을 볼 때 자녀 돌봄은 주민의 과반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어린이집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주민도 있었지만, 공동으로 여성들이 연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돌봄의 문제를 풀고자 한 시도들을 돌봄위원회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봄위원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틈새돌봄’²¹⁾을 들 수 있다. 틈새돌봄은 육아에 직면한 여성들이 사유화된 돌봄을 공유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 2020년 실제로 위스테이에 입주한 6명 연재 돌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

20) 2018년 위스테이 별내의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

21) 틈새돌봄에 대한 정보는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와 돌봄활동가 인터뷰(2020.12.03.)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그림 5〉 공동육아추진위원회 활동 사진(2018.11.11)



출처: 위스테이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estaycoop/>).

위스테이의 틈새돌봄은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활동가를 매칭해주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위원회에서는 입주초기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가 신청을 받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다(〈표 2〉 참조). 교육은 아파트 조합원 중 어린이집 원감직을 맡았던 주민이 담당하였고, 1개월 동안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놀이방법에서부터 훈육, 먹거리까지 돌봄 전반에 걸친 내용을 교육하였다.

그렇게 돌봄위원회가 틈새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던 중 지역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역 어린이집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1주일간의 돌봄의 공백에 당황스러워했고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초등학교들이 학교에 못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의 부모들도 돌봄 공백의 어려움에 직면

〈표 2〉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돌봄활동가 모집 및 교육 공지

제목: (돌봄위원회) 돌봄활동가 양성교육 일정 공유합니다

내용: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위스टे이 돌봄위원회에서 이웃조합원택의 아이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조합원 선생님을 양성하는 <위스टे이 아이돌봄 활동가 양성교육> 이 열립니다.

8시간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조합원'님은 아이돌봄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필참)

대상: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위스टे이조합원.
 교육수료 후 아이돌봄 (방문포함)활동가로 활동가능한 분

1. 교육일정: 2020년 8월 18화, 19수, 25화, 26수(4회차) 17:00~19:00
2. 교육장소: 동네책방2층
3. 교육내용

일 시	교육 내용	비고
8월 18일(화) 17:00~19:00	별내돌봄생협 함께 돌봄의 방향, 연령별 특성 및 놀이방법	돌봄제공
8월 19일(수) 17:00~19:00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돌봄제공
8월 25일(화) 17:00~19:00	올바른 미디어 사용방법과 독서지도법	돌봄제공
8월 26일(수) 17:00~19:00	식품안전과 돌봄 교사의 역할	돌봄제공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위스टे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공식카페(<https://cafe.naver.com/westaynamb>).

하였다. 돌봄위원회는 준비하고 있던 틈새돌봄을 활용하여 두 가지 위기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²²⁾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1:1 돌봄매칭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 맞벌이 부부 중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거나 사설 돌봄서비스를 꺼리는 7가구가 참여하였다.²³⁾ 7가구의 아이들을 일정 시간 동안 돌봄교육을 받은 활동가의 집에 맡겨졌고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간 동안 활동가가 아이를 돌봐주었다. 돌봄활동가는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다양한

22) 사무국 직원 인터뷰(2020.11.02),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

23)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

놀이를 함께 했다.²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문가나 돌봄 활동가들 중 가능한 사람들이 시간표를 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술, 연극, 풍물 등 2시간 정도의 수업 프로그램을 짜고 2시간은 자유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1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돌봄서비스를 구하지 못한 부모들은 돌봄 프로그램을 환영하였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한계는 갑작스러운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고용노동부, 2020). 이처럼 휴원·휴교에 따른 돌봄 공백을 조부모의 도움과 같은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조부모가 부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과 같은 돌봄은 기계화된 방법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교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좀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결이 필요하다. 즉, 돌봄을 커먼즈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위스테이의 틈새돌봄 사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페더리치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의 실천사례로 볼 수 있다.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를 살펴보면 돌봄위원회 초기의 절실함이 현재의 위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이 나타나 있다.²⁵⁾

24) 돌봄활동가 인터뷰(2020.12.03).

25)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 “(마을의 공동육아는) 만들어가야 하는 거였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죠. …… 여기 안에서 공동의 돌봄을 뭔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돌봄위원회가 되었고…….”

또한, 위스데이 돌봄공동체의 개방적 특성은 기존의 육아공동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기존의 육아협동조합은 조합에 소속된 부모와 그 가족들만 돌봄 과정에 참여한다. 반면 위스데이의 돌봄위원회 활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마을의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돌봄 서비스의 수혜를 받으며 다양한 돌봄 행사에 참여한다. 반대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돌봄 봉사자가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놀이축제 같은 돌봄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마을의 아이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돌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돌봄과 재생산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중심이 된다. 이현옥·박주희(2019)는 육아협동조합이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위스데이의 돌봄위원회는 개방성을 통해 재생산을 일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돌봄이 마을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성들이 주축이 된 돌봄위원회의 활동이 돌봄의 젠더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틈새돌봄은 구상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결정해 나아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돌봄의 젠더적 성격을 지워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틈새 돌봄과 같이 여성들이 연대한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에 대한 교훈은 받아들이되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가 여성들만의 몫이 아닐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

현지 조사를 위해 위스데이를 방문한 필자들은 공원으로 조성된 아파트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키보드를 타며 즐거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의

활기가 아파트를 꽉 채우고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련된 공용 공간에는 나눔 소식과 배움을 모집하는 공고문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이 키워주었다’라는 옛날이야기들이 이곳에서는 과거 속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위스데이 별내는 재생산 중심으로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이자 이는 현대 도시 사회에서 생산 위주가 아닌 재생산 중심의 삶을 주장한 여성주의와 궤를 이어가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 과정을 위스데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성들이 실행해 왔던 연대의 역사에서 커먼즈는 물리적인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변화의 과정이었다. 또한, 단순히 자원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위스데이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 과정에서 위 두 가지 요소를 포착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은 인식 변화에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였다. 위스데이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기획 단계부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공동체라는 것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사람들은 입주 후 공동체 교육의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 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으로 인한 사고의 전환이 실천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거주 공동체 활동은 집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아파트를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생각 공유는 사고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생각 공유를 통해 커먼즈적 해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입주 후에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공동체적 문제해결이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깨닫

고 있었다. 조합원의 교육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위스테이의 교육과정은 아파트가 재생산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둘째,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체는 공통적인 위기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위스테이에서 돌봄위원회는 사회적 재생산을 커머닝한 대표적인 예로 마을의 돌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돌봄위원회의 여성들은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나갔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틈새돌봄을 통한 문제해결은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의 실효성을 증거한다. 국가나 시장과 비교하여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처는 돌봄의 커먼즈화가 보여주는 강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틈새돌봄을 통한 공동체의 돌봄문제 해결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사회적 재생산을 국가의 복지 대상 또는 사유화된 재생산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커먼즈라는 대안으로 확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현실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의 실천은 미약하지만 시작 가능하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커먼즈의 실현 과정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가려져 있다는 점(gender-blindness)’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위스테이의 돌봄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여성인 반면, 아파트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가 1명뿐이었다.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를 담는 방식은 부수적이고 주변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에 대해 체감하는 온도가 달랐고 돌봄위원회와 이사회 간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²⁶⁾ 커먼즈의 실천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정한 커먼즈로 작동하기 위해서 위스테이가 아파트 단지라는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위스테이는 공동체 활동을 단지 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26) 돌봄위원회 위원 인터뷰(2020.11.17).

사회로 확산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양주시,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통합 커뮤니티 관리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20).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위스테이 별내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진정한 커먼즈로 성장하는 과정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커먼즈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위스테이는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주민 모두가 조합원으로써 주거생활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커먼즈를 표방하고 있으나 초기 재원 마련 과정과 토지확보 과정에서 공공의 지원이 있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20). 현대도시에서 사유화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커먼즈의 완벽한 자율성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인권 외(2019)도 커먼즈의 내재적 모순으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커먼즈와 관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대면하기 어려움에 따라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들의 이야기가 위스테이 별내의 상황을 모두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최소한 연구에 인용한 인터뷰를 한 대상자들의 경우 공동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참여자와는 차이를 갖는다. 향후에는 일반 참여자를 포함하여 인터뷰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사례로 확장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원고접수일: 2021.01.29

심사완료일: 2021.02.23

게재확정일: 2021.03.05

최종원고접수일: 2021.03.09

Abstract**Caring Crisis and Commons as an Alternative Approach:
A Case Study of WeStay Byeollae**

Yoonhye Park, Yilsoon Paek

In the midst of Covid-19 crisis, caring has emerged as a rising agenda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not only a private issue but also social and communal. Although social reproduction has been regarded as a subdomain of production or gender problem, a shift in perception is now being encouraged so that it can be viewed as an equally important matter to all community members. In this research, the case study of 'WeStay Byeolla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Federici's view that suggests transformation of thinking and grassroots democracy for 'Commons'. WeStay Byeollae, the first housing co-op apartment complex in South Korea, is run by the resident members of the housing cooperative. Unlike other apartments in South Korea, these residents have built a creative culture of reproduc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alliance, self-management,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allowing th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ial reproduction.

Keywords: Social reproduction, Care, Commons, Community, WeStay Byeollae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7. 『뉴스테이 성과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김경희·강은애. 2008.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본 모성과 노동」. 《담론 201》, 10권 4호, 71~106쪽.
- 김경희. 2009.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권 2호, 147~184쪽.
- 김송이. 2012.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 연구」. 《여성연구》, 통권 82호, 103~136쪽.
- 김양지영. 2015. 「돌봄의 세대 전가」. 《한국여성학》, 31권 4호, 87~145쪽.
- 네그리, 안토니오. 하트, 마이클(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 2014. 『공동체: 자본가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고양: 사월의 책.
- 달라 코스타, 마리아로사(Mariarosa Dalla Costa). 2017.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김현지·이영주 옮김, 서울: 갈무리.
- 문순영. 2008.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 (quality of job) 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3호, 207~237쪽.
- 박인권·김진연·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권 3호, 62~113쪽.
- 박정우. 2018.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성-돌봄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 이동」. 《사회복지정책》, 45권 2호, 39~66쪽.
- 박현미. 2010. 「돌봄노동 일자리 특징과 저평가 문제」. 《노동저널》 10호, 183~190쪽.
- 배상미. 2015. 「가사노동을 역사화하기: 실비아 페테리치」, 《여성이론》, 32호, 159~169쪽.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적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권 1호, 111~143쪽.
- 백학영. 2016.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0권 1호, 189~217쪽.
- 사회혁신기업 더함. 2019. 『위스테이별내 연구보고서: 커뮤니티를 살다』.
- 사회혁신기업 더함. 2020. 「위스테이(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례 연구 발표자료」 (미공개).
- 안숙영. 2017.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권 2호, 107~136쪽.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1~32쪽.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29권 2호, 34~74쪽.
- 이아승. 2020. 「신자유주의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 《가족과 문화》, 32권 3호, 54~77쪽.

- 이은정.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권 1호, 81~110쪽.
- 이현옥·박주희. 2019. 「일상의 통제력을 담보한 돌봄 사회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5권 3호, 79~112쪽.
- 일리치, 이반(Ivan Illich). 2015. 『그림자 노동』, 노승영 역. 고양: 사월의 책.
- 정진주·문현아·김은정·이상운·정최경희·김유미·김인아·박홍주·박선영·오카노 야오. 2012. 『돌봄노동자는 누가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파주: 한울.
-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리지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권 2호, 293~300쪽.
- 최은영. 2013. 「돌봄통합적 사회정책의 재설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호, 237~263쪽.
- 최영. 2012.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권 4호, 157~184쪽.
-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 2019. 『공동자원의 영역들』, 과천: 진인진.
- 최희경. 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호, 113~138쪽.
- 페데리치, 실비아(Silvia Federici). 2013.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서울: 갈무리.
- 함선유. 2020. 「돌봄직의 임금에 관한 중단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권 2호, 429~451쪽.
- 홍경준·김사현. 2014.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와 임금불이익」. 《한국사회복지학》, 66권 3호, 133~158쪽.
- Bakker, I. 2003. "Neo-liberal governance and the reprivatization of social reproduction: Social provisioning and shifting gender orders". In S. Gill and I. Bakker. *Power,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Bakker, I. 2007. "Social reproduction and the constitution of a gendered politic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Vol. 12, No. 4, pp.541~556.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 49, No.1, pp.92~105.
- England, P., & Folbre, N. 1999. "The cost of caring".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61, No. 1, pp.39~51.
- Federici, S. 2013. "Commons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feminists movements in Europe", *Femina Politica*, Vol. 22, No. 1, pp.93~100.

- Federici, S. 2019a.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PM Press.
- Federici, S. 2019b. "Social reproduction theory: History, issues and present challenges", *Radical Philosophy*, Vol. 2, No. 4, pp.55~57.
- Folbre, N. 2006. "Measuring care: Gender, empowerment, and the care econom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7, No. 2, pp.183~199.
- Hayden, D. 1982.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A History of Feminist Designs for American Homes*. MIT Press.
- Katz, C. 2001. "Vagabond capitalism and the necessity of social reproduction". *Antipode*, Vol. 33, No. 4, pp.709~728.
- Marks, B. 2012, "Autonomist Marxist Theory and Practice in the Current Crisis", *ACME: An International E-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Vol. 11, No. 3, pp.467~491.
- Mitchell, K., Marston, S. A., and Katz, C. 2012. *Life's work: Geographies of social reproduction*. John Wiley and Sons.
- Monteagudo, G. 2019. "Women Reclaim the Commons: A Conversation with Silvia Federici",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51, No. 3, pp.256~261.
- Norton, J., and Katz, C. 2016. "Social reproduction". In Richardson, N. Castree, M.F. Goodchild, A. Kobayashi, W. Liu and R.A. Marst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People, the Earth, Environment and Technology*, pp.1~11.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 Burger, J., Field, C. B., Norgaard, R. B. and Policansky, D. 1999 "Revisiting the Commons: Local Lessons, Global Challenges", *Science*, Vol. 284, No. 5412, pp.278~282.
- Sato, C., and Alarcon, J.M.S. 2019. "Toward a postcapitalist feminist political ecology's approach to the commons and commo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ons*, Vol. 13, No. 1, pp.36~61.
- Shiva, V., 1988,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Ltd.
- Tummers, L., MacGregor. S. 2019 "Beyond wishful thinking: a FPE perspective on commoning, care, and the promise of co-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Vol. 13, No. 1, pp.62~83.

기타 자료

고용노동부. 2020.4.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

- “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검색일: 2021.01.26.)
- 김태규. 2019.11.29. “입주 전부터 예비이웃들과 마을공동체 함께 구상해요.”, 《한겨레》
- 뉴시스. 2020.10.26.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확진율 14~100%…진단까지 5일 소요도”
- 이병훈. 2020.12.22. “발달장애 가족 덮친 코로나19 … 부모 20% ‘돌봄 부담에 직장 관둬’”, 《파이낸셜 뉴스》.
- 이수연. 2020.10.10. “돌봄위원회, 막걸리학교 … ‘백개의 학교’가 있는 ‘동네살이’”. 《한겨레》.
- 이승훈. 2019.06.10. “‘위스테인’ 500세대의 실험 … 그들은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 임미나·김지현. 2020.12.18. “코로나 확진 후 자택 대기중 서울만 580명”, 《연합뉴스》.
-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공식카페, <https://cafe.naver.com/westaynamb>(검색일: 2020.12.15).
-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자료(미공개)
- 위스테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estaycoop/>(검색일: 2021.01.14).
- 위스테인 홈페이지. <http://westay.kr/Intro/History>(검색일: 2020.12.17).
- 차형석. 2020.07.17. “전국 곳곳에 이런 아파트가 생겨만 준다면…” 《시사IN》.